

◎ 家屋形土器의 出土

七月二日 慶州博物館에 家屋形土器一點이 入手되었다. 明活山城附近에서 出土인 土器는 높이 一·三八尺 지름길이 一·五五尺인데 팔각지붕의 단층 형식이고 합각머리 아래로 문이 나서 드나들게 된 佛龕形式의 것이다.

이러한 遺物의 發見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例로써 完形의 貴重한 遺物이라 할 것이다.

파키스탄 紀行

黃 壽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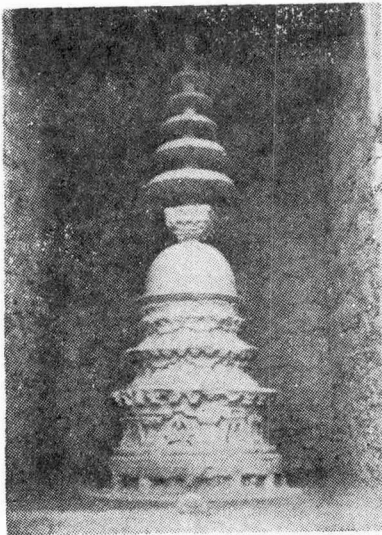
三月二十五日 세일몬으로부터 다시 印 뉴·델히에 돌아와 五日間の 休暇를 보냈습니다. 休暇라고 하지만 旅行記錄의 정리와 旅券수속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印度는 이같은 수속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비사는 韓麒麟總領事의 주선으로 入手할 수 있었으나 旅費와 日程關係로 豫定하던 가라치行을 斷念하고 古代 佛敎의 中心인 간다라地方으로 直行키로 하였습니다.

三月三十日 午後 뉴·델히의 市內空港을 떠나 넓은 北印의 平野를 지나 一시간 五十분에 라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西파키스탄의 현관으로 아름다운 都市인데 印과는 달라 거리에는 사치품이 많았고 物價도 비쌌습니다. 市民의 衣服도 男女가 모두 바지를 입은 것이 주목되었으며 女子는 검은 또는 흰 베일을 쓰고 다니는 것이 기이하였습니다. 翹朝 일찍이 곳 박물관을 찾아서 주로 조각실의 간다라 期作品을 보았는데 대소의 석상과 群像 조각들은 모두 경이와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애석한 것은 출토지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고 진열도 혼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作品中에서도 사진에서 눈에 익었던 佛보살의 巨軀立像과 사라바스티의 釋尊奇蹟을 조각한 板石像들은 모두 우수하였습니다. 印度의 大 小博物館에도 若干의 간다라 期作品이 있고 특히 칼자타博物館은 印度第一의 所藏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곳 라홀을 비롯하여 타시라 페샤왈의 三博物館에 비

한다면 손색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들은 고루 볼 수 있었고 아울러 그들이 出土된 遺蹟도 몇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旅行의 所得이 되었읍니다.

四月一日 아침 九時 急行車로 타시라로 떠나려하였더니 바로 이날부터 時間이 변경되었다고 하기에 十一時十分분 車로 떠나 오후 五時 首都인 라월핀디에 도착하였읍니다. 沿線의 풍경은 印度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北上함에 따라 岩上과 陡리 雪山의 連峰이 展開되었으며 大小麥의 栽培가 많았읍니다. 이곳은 男女의 區別이 심하여 客車는 따로 마련되었읍니다. 車中에서는 승객이 차례로 자리에 쫓아 앉아 기차가 달리는 西方을 向하여 무수히 절을 하며 정문을 의는 것은 처음 보는 回敎徒의 禮拜光景이었읍니다. 首都는 高原에 자리잡고 있어 氣溫도 냉랭하였는데 이곳 一帶는 山岳이 많은 僻地인 줄 짐작하였더니 땅은 넓고 도로는 포장되었으며 大小의 工場이 연도에 건설되고 있어 활기가 굉장함을 곧 느낄 수 있었읍니다.

四月二·三 兩日間은 이곳 首都에서 二十哩 떨어진 타시라를 往復하면서 이름 높은 박물관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平地와 山間으로 古代都市와 寺院址들을 찾아 다녔읍니다. 이곳 타시라의 박물관은 아담한 單層建物로서 考古學者 존·마살의 半生을 받친 發掘에서 收拾된 유물이 소중하게 진열되어 있었읍니다. 館內에 진열된 塔像이나 舍利具 裝飾具 金屬器 土器 등은 모두가 出土地와 知見이 확실한 것뿐이어서 더욱 重要하게 느껴졌읍니다. 그리하여 歸路의 하루를 날여 이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三日間은 가장 즐거운 메모리가 되었읍니다. 아마도 이번 여행중에 찾았던 많은 박물관중에서도 이곳처럼 즐겁고 흥족하였던 곳은 다시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훌륭한 宿舎가 부속되어 圖書室과 더불어 研究者에 公開되어 있는 사실은 부럽기만 하였읍니다. 이곳 寺院址로서 다루마라지카는 大塔을 中心으로 供養小塔과 大小伽藍이 配置되어 있었으며 塑像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었습니다. 주리안寺址는 岩上中腹에 位置하였는데 大小塔周의 像들이 注目되었으며 모라모두寺址에서는 小圓塔이 完全이 保存되고 있어 처음 대하는 實物을 받기기도 하였읍니다. (次頁寫眞) 이들 寺院建物は 모두 特色있는 石築樣式을 보이고 있어 그 방식에 따라 年代判定이 可能하다고 합니다. 現存寺院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發掘된 것이라고 하니 印度에서와 같이 주로 英考古學者의 功績이라고 보겠습니다. 古代都邑址로서는 실찬이 규모가 가장 커서 王宮市街址 寺院址 등이 標示되어 있었으며 그 南端 小崗은 마치 希臘都市의 아르포리스로서 頂上의 쿠날塔은 阿育王子의 故事와 더불어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四月四日 빠스便으로 페샤알을 向하였는데 正午에 인다스大河를 건너 二지가 넘어 山莊같은 旅舍에 들 수 있었습니다. 페샤알에 도착한 후 곧 박물관을 찾았는데 陳列品의 大部分은 彫刻이었으나 陳列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入口전면에 세워진 巨像들은 모두 간다라美術의 傑作이라고 하였으며 유명한 가니시가 王舍利塔(金剛)은 室內中央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곳 館長인 M. A. Shukul 氏와는 翹朝이 뜻을 다시 찾았을 때 만날 수 있었읍니다. 나는 慧超가 찾았던 高諾歌寺의 所在를 물었더니 그는 슈바스갈의 자나가데리가 그 遺址라고 말하면서 明日 館員를 시켜 안내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이날 午後에는 郊外의 사지카·벨히로 가니시카 大王塔址를 찾았으나 荒廢되고 民墓가 들어있어 發掘址를 똑똑이 알 수 없읍니다.

四月六日 아침 六時半 빠스便으로 이 곳 宿舍를 떠나 밤늦게 돌아왔는데 박물관 관원의 인도로서 다음의 兩大寺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幸運이었읍니다. 먼저 타르티바이에 이르러 山頂가까이 자리잡은 寺院址를 찾았는데 大塔과 그 周圍의 石造窟室이 中心을 이루었으며 그 밑에 僧院址 塔院 地下僧房 등이 있었고 石佛과 塑佛片이 多數收拾되어 있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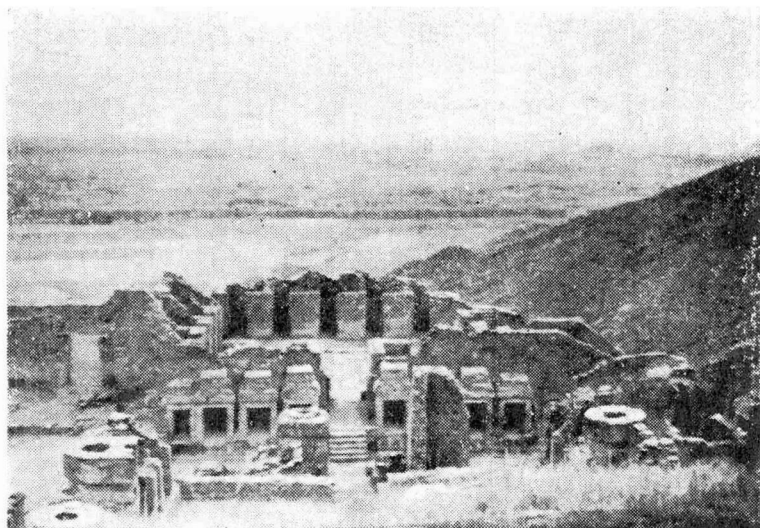
이 곳은 스와트가 멀리 指摘되는 山中의 大刹로서 옛 규모와 장엄이 짐작되었읍니다. 八角形小塔이나 圓形屋頂의 石窟樣式이 주목 되었읍니다. 이 곳을 떠나 다시 빠스便으로 午後二時에 지나카·데리에 당도하였는데 이 곳이 바로 慧超가 찾았던 寺址로 推定할 수 있다는 곳입니다. 平野에 자리잡은 낮은 언덕위 遺址되었는데 이 곳은 지난 三年間 日本 發掘隊(水野精一教授)가 발굴하였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巨大한 石築基壇위에 建物址가 相接하였는데 그 平面은 곧 짐작이 아니되었으나 전체의 규모는 거의 露出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慧超가 기록한 大塔址가 아니 보이기 때문에 管理人에 물었더니 이곳서 멀지않은 岩山을 가르켜 주었읍

니다. 그리하여 험한 길을 더듬어 山頂 밑에서 日本人들이 發掘한 方形基壇의 塔址를 볼 수 있었읍니다. 塔址는 돗자리를 덮어 保護되어 있었는데 守直人이 있어서 친절하게 보여 주었읍니다. 이 곳 寺址를 찾았을 때는 部落古老의 茶대접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日人으로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이 곳뿐 아니라 도처에서 이같은 厚意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氣風을 느끼게 하여 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여행이 가장 즐거웠던 것도 이와 같은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歸路에 슈바스갈에서 阿育王磨崖勒文을 보았는데 老齡의 管理人이 夕陽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참된 眞實입니다.

四月七日 이 곳 페샤알을 떠나 빠스便으로 다시 타시라를 向하였읍니다. 西쪽의 카이바 峻嶺을 넘으면 아후가니스타의 카불에 이르고 그곳서 바미안의 大佛이 멀지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이 곳 페샤알을 이번 여행의 西端으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東西文明의 十字路이며 中亞의 關門인 이 곳까지 찾아와서 佛敎美術의 一大中心이며 특이한 發達相을 보이던 간다라의 故土를 밟을 수 있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읍니다. 장차 또 기회가 있다면 먼저 찾고 싶은 땅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四月八日 午前에는 타시라에서 가라왕寺址에 이르러 殿塔址를 들면서 우리 경주 석굴암과 相似한 平面을





보이는 兩個의 小塔院址에 놀라기도 하였읍니다. 이날 라일빈디를經由하여 밤늦게 라홀에 이르렀을 때는 몹시 피로하였읍니다. 翌九日의 朝刊은 우리나라의 軍政延長 保留를 特報하고 있었읍니다. 午前에 라홀博物館의 彫刻室을 다시 찾았고 午後三時 라홀空港을 떠나 다시 印度 뉴델히에 安着할 수 있었읍니다. 이것으로 印度와 그隣接 三國의 巡回가 모두 끝났읍니다. 歸國을 앞두고十日間の 뉴델히 滞在가 남았을 뿐입니다.

石窟庵 通信(十)

鄭 明 鎬

一、調査關係

繼續되는 降雨로 因하여 窟外의 溫·濕도가 窟內보다 높아서 周壁諸像表面에 물방울이 엉겨서 乾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隨時로 變化하는 氣象에 起因되므로 防止하기 위하여서는 窟內의 溫度를 窟外와 均一하게 加熱措置하였으면 좋을 듯하나 動力施設이 없으므로 二、三重의 門戶를 設置하였으면 좋을 듯하다.

二、復元考察

前室架構를 위하여 慶北安東 榮州 忠北 槐山 忠南 禮山 等地的 古建物調査가 實施되었는데 參加者는 黃壽永 林泉 申榮勳 李光圭의 諸氏이었다(73-78 뉴스欄參照)

三、工事關係

六月五日 行政事務가 郡에서 도로 移管되었다. 「동」 및 前室工事의 現場說明(六月十七日)에 이어 六月十九日 入札을 施行한바 信陽社가 落札되었고 七月一日起 監式이 있어 監督官과 關係員應의 參加로 佛式으로 舉行되었다. 이날 午後에는 監督室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事項이 討議되었다.

- (1) 工事に 앞서 前室 彫刻의 保護를 위하여 仁王像과 八部像의 撤去(瞻文) 石 아래와 「아치」部에 「틀」을 만들어 끼고 出入口를 設置할 것.
- (2) 前室木部의 模型을 七月末까지 製作完成할 것.
- (3) 前室左右와 「아치」上의 日帝時 石築을 除去함에 있어 震動이 없도록 드릴(dril)을 使用할 것.
- (4) 監督室人員은 工事進行中 個別的인 監督行爲를 삼가하며 監督官의 指示에 따른다.

七月三、四、九日 三次에 걸쳐 窟內光線 強度를 測定하였다.

七月四日 窟內本尊佛의 汚濁이 극심함으로 工事に 앞서 浴佛作業을 하였다.

四、人事關係